

## 주제 분석과 텍스트 유형\*

신 지 연  
(목원대학교)

### <Abstract>

Jiyeon Shin. 2011 *Thematic Analysis and Text Type. Korean Semantics, 36*. At many times topic and main idea are extensively called ‘juje주제’ Topic, which is the subject questioned by the text producer, starts the text narration and it can be presented in a noun phrase. The main idea identifies what the producer thinks of the topic and wants to say. Since thoughts are not objectified and are expressed actively, they are not presented as a noun phrase but expressed as propositions. This main idea, which includes the narrator’s intention is like that of van Dijk’s macrostructure and is similar to demonstrative text’s these. Topic is the subject of question but the main idea can be regarded more as a solution. We happen to encompass both as ‘juje’.

These two different ‘juje’ can be emphasiz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text. Informative texts like descriptive text have structure with several specific items listed and although these texts are the new information forming new contents, since it is hard to intensively express in one thesis, when the whole text is embraced, it seems like the attentions go to the topic itself,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argument. Extensive rheme are not noticed well as the ‘juje’ because ‘juje’ have characteristics as ‘best summary.’ While the rheme of descriptive or explanatory texts usually expand, the rheme

---

\* 본 연구는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A-A00089).

of demonstrative texts often converge into a single argument through other basis or supporting materials. Intensive rhemes itself can be identified as a 'juje'. Therefore, although the rheme is read the most important in a text, in case of descriptive text or informative text, themes have to be the subject because of the epitomical characteristic.

핵심어 : 주제(theme), 주제문(thesis sentence),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텍스트(text), 텍스트 유형(Text Type), 거시구조(macrostructure), 집약형 레마(intensive rheme), 확산형 레마(extensive rheme)

## 1. 서론

우리가 보통 주제라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의 글이 다루는 대상인 화제로 여겨지는 것과 논증 텍스트에서 화자가 주장하는 결론, 곧 테제라고 말해지는 것 모두를 '주제'라 부르는데 양자는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주제'에 대한 뜻풀이도 다음 (1)과 같아 서로 다른 개념을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 주제(主題) 「명사」

「1」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2」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

학교 교육에서 사용하는 '주제'의 개념도 위 사전의 두 가지 정의를 반영하여 양자를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의 '주제 설정' 단원을 보면<sup>1)</sup>, '주제'를 '말하는 이가 주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나 근본이 되는 문제'라고 정의하여 두 가지 주제 개념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말하는 이가 주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라면 테제를 가리

1) 이주행 외(2003).

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본이 되는 문제’라고 하면 흔히 화제(話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topic이나 theme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게다가 아래의 설명을 보면 이 두 가지 주제 개념이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의 주제에 대한 설명(이주행 외(2003:33))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는 이를 완성된 하나의 문장, 즉 주제문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제를 ‘주 5일 수업 제도의 실시’라고 설정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내용도 막연해진다. 따라서 ‘주 5일 수업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해야 내용도 구체적인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위 (2)에서 ‘주제’라고 본 ‘주 5일 수업 제도의 실시’는 ‘화제’로, ‘주제문’이라고 한 ‘주 5일 수업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중심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단지 얼마나 더 구체적이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두 가지 개념을 ‘주제’라는 하나의 용어로 아울러 가리켜 왔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 두 가지 주제 개념이 왜 이렇게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서 섞여 쓰이게 된 것인지를 텍스트 유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곧 이 논문의 논의는 주제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어떤 주제 전개 유형을 가지는 텍스트인가에 따라 주제로 파악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 2. 두 가지 주제

아래의 짧은 개화기 가사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보자.<sup>4)</sup>

- 
- 2) 여기에서 보듯이 국어교육에서는 사건의 두 번째 정의를 전제하듯이 ‘예술 작품에서’로 이 주제의 관련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 담화로 관련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3) 위 책에서 주제 설정을 다루고 있는 절의 제목은 ‘주제의 설정과 화제의 선정’이다. 제목을 보면 ‘주제’와 ‘화제’를 구분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화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3) 무궁화無窮花 (20세기 초, 崔松雪堂최송설당(1855~1939))

압 마당에 심은 화목花木 네 일흠이무궁화無窮花니  
 즈손화발子孫花發 무궁지無窮枝라 즈손子孫 위히 심었구나  
 한 가지가 시로 도다 꽃 한 송이 시로 피고  
 또 한 가지 도드면서 꽃 한 송이 또 피이니  
 무궁무진無窮無盡 뜻는 가지 무궁무진無窮無盡 꽃송이  
 무궁무진無窮無盡 이 세월歲月에 무궁무진無窮無盡 번성蕃盛하도  
 우리 즈손子孫 너와 갖치 무궁무진無窮無盡 번성蕃盛하계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이 가능하다. 첫째는 ‘무궁화’라는 답이고, 둘째는 ‘무궁화의 무궁한 속성에 빚대어 가문의 무궁한 번성을 염원하는 것’이라는 답이다. 이들은 각각 위 (1)에서 보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주제’에 대한 1번과 2번 뜻풀이를 반영한 것이다.

첫 번째 답이 반영한 ‘주제’는 흔히 topic이나 theme로 불렸던 것으로 프로그 학과에서부터 정보부담량(communicative dynamism)과 관련하여 ‘알려진 정보’를 나타내며 주로 문두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해졌던 것이다.<sup>5)</sup> 이 주

4)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한 고민이 개화기가사자료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가사들을 유형 분류하기 위해 그 주제를 분석하는 가운데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개화기 가사를 자료로 보인다. 이 가사들은 개화기 가사를 수집하여 주제 유형별로 분류한 신지언 외 편(2011)에 수록되어 있다. 가사는 문학 장르의 하나로 여겨지지만, 개화기의 가사는 그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 유형으로 문학적 형상화의 정도가 매우 약한, 리듬을 가진 실용문이라 할 만하였다. 예를 들면 <대한매일신보>나 <제국신문> 등의 개화기 신문들은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실이나 독자 투고를 모두 가사 형식으로 실고 있으며, 서간문이나 기행문 등도 모두 가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5) Halliday and Matthiessen(2004:64~66)에서는 theme이 품사적 성격과 상관없이 순서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무조건 문두에 나타나며, 메시지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심지어 관정의문문 "Did you sleep okay?"에서도 문두에 위치하는 'Did'를 theme(1)으로, 'you'를 theme(2)로 본다. theme(1), theme(2)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Halliday and Matthiessen(2004:79~87)에서는 theme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전형적인 topical theme 외에 담화 표지나 접속사와 같은 것은 textual theme으로 양태 요소와 같은 것은 interpersonal theme으로 하위 분류한다. 여기에서는 텍스트 단위의 theme이나 topic은 다루고 있지 않다.

제는 흔히 대하여성(aboutness)를 가진다고 하여 ‘그 텍스트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물을 때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곧 이 의미로 텍스트의 주제를 말할 때에는 텍스트가 문제 삼는 대상을 말하며 ‘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곧 (3)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무궁화’라고 답한다면 이 텍스트가 ‘무궁화’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답하는 것과 같다. 이 topic이나 theme에 대립하는 개념은 comment 혹은 rheme이라 불리는 것으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topic이나 theme에 대해 말하는 ‘논의의 핵심’으로 본다.

원래 전달 가치 면에서 topic-comment 구조 혹은 theme-rheme 구조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은 문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60년대 이후 다네쉬(Dane) 등에 의해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는 데까지 확장되었으며<sup>6)</sup>, 현재에는 ‘대화의 주제, 토론의 주제’라는 말이 이 topic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쓰일 정도로 화제의 개념은 텍스트 전체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주제는 다네쉬가 5가지로 유형화한 주제 전개 방식에 의해 rheme 부분으로 확대된다.<sup>7)</sup> 이를 주제1이라고 하자. 이 주제1은 사실 ‘topic’의 번역어로 많이 쓰인 ‘화제(話題)’라고 하는 편이 더 좋겠지만 이미 ‘주제’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으므로 ‘주제’가 이 뜻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도 어려워 보인다. 인터넷 포탈 네이버의 뉴스 하위 범주에는 ‘주제별 보기’와 ‘언론사별 보기’가 있고, ‘주제별 보기’의 주제 범주에는 ‘정치, 경제, IT/과학, 사회, 국제, 스포츠, 문화/연예, 스포셜, 지역’이 있다. 이때의 ‘주제’는 무엇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가 하는 화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토론의 대상, 혹은 토론 거리가 되는 논제(resolution)는 반드시 주제나 안티테제처럼 명제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sup>8)</sup>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이나 ‘4대강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와 같은 비명제적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토론 거리를 ‘논제’라 부르지 않고 ‘주제’라 부르고 있다. 예를 들면 MBC가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토론 프

6) 이성만 역a(2004:68) 참조.

7) 이성만 역a(2004:68-73) 참조.

8) 강태완 외(2001:35-37) 참조.

로그래 <백분토론>의 최근의 ‘주제’ 목록은 다음 (4)와 같다.

- (4) 한미FTA 논쟁, “여기서 끝냅시다”(2011.11.1)  
 10.26 재보선과 한국 정치(2011.10.27)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서울의 선택은?(2011.10.13)  
 2012 세계경제와 우리 예산(2011.9.29)  
 유로 위기, 어디까지...(2011.9.8)

명제 형식의 ‘논제’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명사구 형식으로 논의를 대상을 가리키는 화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이 무궁화를 화제로 삼아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답변의 초점을 맞추면 두 번째 답변이 도출된다. 이 두 번째 의미의 주제는 명제 형식을 취하며 화자의 의도가 고려된 텍스트 기능과 관련된다. 이를 주제2로 부른다. 주제2는 사전의 두 번째 정의가 담고 있는 부분적 요소들과 관련되는데 두 번째 정의를 다시 가져와 그 구성 요소들을 보이면 아래 (5)와 같다.

- (5) 주제 「2」 예술 작품에서 ①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②사상.

먼저 주제2가 명제 형식을 취하면서 화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은 (5)②와 관련된다. ‘사상’은 ‘대상’이나 단순한 ‘개념’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인식 체계나 견해, 주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테마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므로 테마에 대한 기술 내용을 가진 ‘테마+레마’)의 명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논증 텍스트의 ‘테제(these, thesis)’와도 유사한 것으로서 테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마테지우스가 ‘논의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레마이다. 특별한 사상을

9) 문장의 ‘theme+rheme’구조는 ‘topic+comment’, ‘화제+평인’, ‘주제부+설명부’ 등의 다양한 용어로 바꿔 쓸 수 있으며, 프라그 학파의 Mathesius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전달가치적 측면에서 문장을 ‘논의의 출발점+논의의 핵심’의 구조로 보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텍스트를 요약한 주제문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텍스트의 주제가 텍스트 유형에 따라 테마 혹은 레마와 특별히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테마+레마’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나타내기 위한 텍스트의 개성은 테마보다는 레마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테제는 화자가 논증 텍스트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바로서 이것이 새로운 정보로서 명백히 주장되지 않으면 논증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sup>10)</sup> 브링커(2002)는 “생산자는 텍스트 주제를 나타내는 (논쟁적인) 주장이자 테제(결론)를 논거를 이용하여 증명한다(이성만 역(2004:103))”고 하여 ‘주제’가 테제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11)</sup> 이때의 주제는 물론 주제2이다.

이 주제2는 텍스트에서 화자에 의해 새로이 말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텍스트 요약에 의해 간추려질 수 있는데, 화제나 테마가 문장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명사구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과는 달리 거시구조나 테제는 주제문으로 간추려질 수 있어야 한다. 곧 우리가 흔히 ‘이 글에서 주제문을 찾으라’고 할 때의 주제문은 바로 이 두 번째 주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주제2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주제2는 국어교육에서는 ‘중심 내용(main idea)’으로 불리기도 한다.<sup>12)</sup> 이삼형(1994)에서는 ‘중심 내용(주제)’을 텍스트의 계층적 구조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정보로 보고 있으며, 김봉순(2002)에서는 중심 내용을 요약 전략인 거시규칙에 의해 얻어지는 최상위 명제로 보고 있다.<sup>13)</sup> 그런데 주제2는 이 ‘중심 내용’보다는 더 큰 범위의 개념이다. 중심 내용은 텍스트 내적 요소가 주로 결정하지만, 주제2에는 화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화자의 의도라는 텍스트 외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이 ‘화자의 의도’라는 측면은 사전적 정의에서도 (5)①과 같이 명백히 주제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sup>14)</sup> 주제2가 ‘중심 내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것이 ‘요약’이어

10) 논증의 구조로는 영국의 철학자 Toulmin의 논증 모델(1958)이 고전적이다. Toulmin에 의하면 논증 텍스트에서는 화자는 자료와 추론규칙과 논거 등을 통하여 텍스트의 결론인 테제에 도달한다. 이성만 역(2004:103-4) 참조.

11) 프라고 학파의 ‘주제’는 화제를 말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서양의 언어학에서도 ‘주제’라는 하나의 용어로 우리의 주제1과 주제2를 함께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이삼형(1994:81), 서혁(1996:26~27), 김봉순(2002:201)에서는 중심 내용과 논지, 요약, 요약(summary), 주제(theme), 요지(gist), 화제논점(topic issue), 주제문(thesis sentence)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개념상 혼동의 여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13) 주제를 텍스트 요약으로 보는 입장들에 대해서는 반다이크의 거시구조 논의뿐만 아니라 하이네만·피이베거(백설자 역, pp.241~243), 브링커(2002, 이성만 역(2004, pp.60~61))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4) 신지연(2011) 참조.

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장 표면적 내용 요약이 아니라 화자 의도까지 고려한 화용론적 요약이어야 한다. ‘중심 내용’이라는 말은 이 ‘화자 의도’까지 함의하지는 못하므로 주제2는 중심 내용보다 더 큰 외연을 갖는다고 본다.

담화 생산자가 이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기능적인 관점을 고려한 것이 주제2라고 본다면 주제 논의에 담화 상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는 주제를 화용론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혁(1996)에서 발화 수반적 혹은 발화 효과적 주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화용론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혁(1996)에서는 화행이론을 원용하여, 담화주제에는 중심 내용이나 요지와 같은 담화적 주제 외에 화자의 의도나 수용자의 태도를 반영한 발화수반적 주제와 발화효과적 주제도 있다고 하여 주제가 여러 층위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말한다. 주제2를 화자 의도가 고려된 것으로 보는 것은 주제 분석에 기능적 관점의 반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고려한 브링커(2002)의 양립성의 원칙<sup>15)</sup>이 말하는 바이다. 양립성의 원칙은 ‘텍스트의 핵심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은 텍스트 기능과 가장 잘 양립할 수 있는 주제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 텍스트의 기능이 호소적 기능을 가진 광고텍스트라면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목적이 그 텍스트의 주제로 파악된다는 것이다.<sup>16)</sup> 곧, 텍스트 화용론적 관점에서 주제2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결국 화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 의해 좌우된다. 화자 의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서혁(1996)의 발화수반적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다.<sup>17)</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주제’로 부른 것에는 ‘알려진 정보’로서 논의의 출발점을 이루는 대상을 가리키는 주제1과 텍스트의 간추려진 내용으로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의도한 중심 내용을 이루는 명제를 가리키는 주제2가 있다.

15) 이성만 역a(2004:79-80)

16) 결국 화자 의도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브링커의 ‘주제’ 또한 프라그마틱의 토픽 곧 우리의 주제1과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의 주제2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텍스트 언어학에서 ‘주제’프라그마틱 학파의

17) 텍스트 기능은 문장론의 문장종결법 혹은 서법과도 유사한데 서법이란 화자의 문장에 대한 태도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다음 가사 (6)의 주제 분석 과정에서는 (7)과 같은 주제 후보들이 도출된다.

(6) 寒江釣魚한강조어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1일)

靑蓊笠<sup>청약림과</sup> 綠囊衣<sup>녹사의</sup>로 斜風細雨<sup>사풍세우</sup> 不關<sup>불관</sup>하고  
萬頃蒼波<sup>만경청파</sup> 너른 물에 壹葉片舟<sup>일엽편주</sup> 흘러져어  
泛彼中流<sup>범피중류</sup> 往來<sup>왕래</sup>할 제 數尺竿竹<sup>수척간죽</sup> 구지 잡고  
各種魚<sup>각종어</sup>를 나가낸다

낙디줄이 근탱근탱 壹隊鮓魚<sup>일대복어</sup> 걸넛고나  
네 心腸<sup>심장</sup>은 엇지<sup>엇지</sup>야 亂臣賊子<sup>난신적자</sup> 化出<sup>화출</sup>인지  
壹片毒氣<sup>일편독기</sup> 包藏<sup>포장</sup>하고 殺害蒼生<sup>살해창생</sup> 爲主<sup>위주</sup>리나  
何如間<sup>하여간</sup>에 나가내고

낙디줄이 근탱근탱 壹隊蟹<sup>일대해가</sup> 걸넛고나  
네 心腸<sup>심장</sup>은 엇지<sup>엇지</sup>야 假志士<sup>가지사</sup> 化出<sup>화출</sup>인지  
利慾<sup>이익</sup>에 前進<sup>전진</sup>다가 危急<sup>위급</sup>하면 後退<sup>후퇴</sup>리나  
何如間<sup>하여간</sup>에 나가내고

낙디줄이 근탱근탱 壹隊秀魚<sup>일대수어</sup> 걸넛고나  
네 心腸<sup>심장</sup>은 엇지<sup>엇지</sup>야 元老宰相<sup>원로제상</sup> 化出<sup>화출</sup>인지  
無數小魚<sup>무수소어</sup> 잡아먹고 壹身肥胖<sup>일신비만</sup> 如彼<sup>여</sup>리나  
何如間<sup>하여간</sup>에 나가내고

낙디줄이 근탱근탱 壹隊鮓魚<sup>일대추어</sup> 걸넛고나  
네 心腸<sup>심장</sup>은 엇지<sup>엇지</sup>야 奸細輩<sup>간세배</sup> 化出<sup>화출</sup>인지  
同族<sup>동족</sup>사생<sup>사생</sup> 不顧<sup>불고</sup>하고 各自漏身<sup>각자루신</sup> 爲計<sup>위계</sup>리나  
何如間<sup>하여간</sup>에 나가내고

낙디줄이 근탱근탱 壹隊針魚<sup>일대침어</sup> 걸넛고나  
네 心腸<sup>심장</sup>은 엇지<sup>엇지</sup>야 獵官輩<sup>엽관배</sup> 化出<sup>화출</sup>인지  
腐敗<sup>부패</sup>米<sup>넙미</sup> 불지라도 左追右逐<sup>좌추우축</sup> 奔走<sup>분주</sup>리나

何如間하여간에 나가내고  
 낙디줄이 근텅々々 壹尾大원일미대원 걸넛고나  
 네 心腸심장은 엇지호야 何樣老物하양노물 化出화출인지  
 他種族타종족을 吞沒탄몰코져 做出凶計주출흉계 往來왕래러나  
 何如間하여간에 나가내고  
 낙디줄이 근텅々々 龍主簿별주부가 드리오네  
 憂國忠臣우국충신 네 아니냐 同病相憐동병상련 잇지말고  
 이내 冤恨원한 드러다가 龍宮용궁에나 傳전호여르  
 네야 춤아 낙글소나  
 鰻魚복어알만 썬바리고 크나즈나 遺漏유루업시  
 주섬주섬 뛰여다가 壹大釜일대부에 폭々 살마  
 憂國우국으로 病병던 志士지사 獨立館독립관에 會集회집하고  
 各自飽食각자포식 호여보세

위 텍스트 (6)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는 서술 대상을 분석한 것, 텍스트를 요약한 것, 텍스트에서 화자가 주장하는 바인 테제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각각의 내용은 아래 (7)과 같다.

(7) 가사 ‘寒江釣魚(한강조어)’의 세 가지 주제 후보

- a. 서술대상 - 낚시
- b. 중심 내용 - 부패 비리 매국노와 같은 복어, 게, 송어, 미꾸라지, 썩치 등을 낚아냄.
- c. 테제 - 복어, 게, 송어, 미꾸라지, 썩치 등을 낚는 것에 빗대어 부패 비리 매국노를 비판함. 관료들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문명 개화를 이룰 수 있음.

여기서 (7a) 서술대상은 화제에 해당하고, (7b)는 텍스트의 표면 정보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중심 내용이나 혹은 거시명제라고 할 만한 것이다. (7c)는 이 텍스트가 화자의 주장을 포함한 것인 논증 텍스트로 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화자 의도를 고려하여 화자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다. 브

링커(2002, 이성만 역(2004))에 의하면 이는 텍스트기능과의 양립성 원칙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7a)가 주제1에 해당하고 (7b)와 (7c)를 통합한 것이 주제2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다음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두 가지 주제

	주제1	주제2
화제-평언 구조	topic/theme	topic+comment (혹은 theme+rheme)
정보성	알려진 정보	새로운 정보
지시대상의 성격	서술대상	사건·상황/주장
언어형식	명사구	명제 형식
‘대하여’성 관련	‘무엇’에 대하여	‘(그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말하다
층위	담화적	담화적/화용론적

주제1은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의 ‘무엇’으로, 주제2는 ‘주제1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의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1은 프라그마학과의 화제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 글쓰기에서는 ‘제재(題材)’라고 말해왔다. 이것은 ‘알려진 정보’로서, 정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항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주제2는 논증 텍스트에서 테제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화자가 해당 텍스트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바가 되며 이것의 초점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레마 부분에 있고 이것이 정보성을 갖지 않으면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주제2는 주제문으로 간추려질 수 있어야 하지만, 주제1은 명제 형식을 취하지 않고 명사구로 표현될 수도 있다. 곧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상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서술 대상’으로서의 ‘주제1’과 ‘화자 의도를 고려한 텍스트 요약’의 성격을 가지는 ‘주제2’를, 실제로 이들이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가지는 데도 불구하고, 양자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이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주제 개념의 혼란은 우리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파터(2001, 이성만역(2006;116))에는 반다이크가 테제와 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헬비히가 비판하였다는 언급이 있다. 헬비히는 주제를 ‘질문’으로 본다. 이 질문은 바로 화제의 ‘대화여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2)에서 보인 사전의 ‘주제’에 대한 첫 번째 뜻풀이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의 ‘문제’와 같은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헬비히의 ‘주제’는 주제1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에 반하여 반다이크의 ‘주제’는 주제2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두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찍이 서혁(1996)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 개념의 혼란스러움이 지적된 바 있으며 거기에서는 주제1과 주제2에 대응하는 것을 각각 화제(topic)와 주제(theme)로 구분하고 있다. 서혁(1996)에서는 화제와 주제에는 각각 문장 화제와 담화 화제, 문장 주제와 담화 주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주제2는 텍스트 요약적 성격을 띠고 따라서 문장군(文章群)으로 설명된 것을 집약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장 주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으며 comment와 어떻게 다른지도 분명치 않다. 또한 결정적으로는 ‘topic’은 ‘화제’로 ‘theme’은 ‘주제’로 번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기 ‘comment’와 ‘rheme’을 도입하기 위한 알려진 정보를 나타내는 같은 요소들로 볼 수 있으므로 본고의 주제1, 주제2와 각각 대응하는 것도 아니다. 서혁(1996;16)에서도 이들 ‘topic’과 ‘theme’을 각기 표면적인 것과 정보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theme’이 ‘담화주제’와 같은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주제’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쓰이게 된 것이 텍스트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요소가 부각되는 데서 말미암은 것임을 보인다.

### 3. 주제와 텍스트 유형

텍스트 중에는 그 유형에 따라 주제2가 도출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어떤 텍스트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주제가 달리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실용

문 텍스트는 브링커(2002)와 같이 기술형, 설명형, 논증형 텍스트로 나눌 수 있다. 기술형 텍스트는 시공간적으로 펼쳐지는 글로서 시간적 과정이나 공간적 부분 요소 등의 하위 구성 요소들을 그 구성적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글이다. 설명형 텍스트는 이해를 돕는 글로서 이유나 원인을 알려주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청자의 부족한 이해를 돕는 글이다. 논증형 텍스트는 어떤 주제에 대한 텍스트 화자의 주장을 담은 글로서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신문 텍스트로 말하자면,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 기사는 기술형 텍스트, 그 사건에 대한 심층 해설 기사는 설명형 텍스트,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이나 해결방안과 관련한 사실이나 칼럼은 논증형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아래 (9)는 석류를 노래한 것이다. 이 텍스트의 내용을 압축하면 석류의 여러 특성을 나열하듯 묘사하였다고밖에 할 수 없어, (9)는 전형적인 기술형 텍스트에 속한다. 석류가 봄부터 여름까지 점점 아름답게 익어 열매 맺은 뒤 찬 겨울 그 맛을 보기까지의 ‘구십춘광九十春光→창포시절菖蒲時節→칠팔구월七八九月→서리 하늘 찬바람’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석류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맛을 예찬한 것이다.

(9) 석류石榴 (20세기 초, 崔松雪堂 최송설당(1855~1939))

I. 남창문南窓門 류렴球簾 밧게 각색화목各色花木 벌었는디

그 중中에 저 석류石榴는 스람 보고 반기는 듯

입을 열고 반半만 우서 순홍치빅磗紅齒白 사랑롭다

II. 리빅도홍李白桃紅 란만爛漫하야 구십춘광九十春光 자랑할 제

요요적적寥寥寂寂 잠자다가 장미황미薔薇黃梅 필 적어야

비로소 넘시 나며 창포시절菖蒲時節 솟이 피어

18)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거리와 같은 정보는 단순보도의 스트레이트(straight) 기사, 해설 및 화제성 읽을거리의 피쳐(feature) 기사, 논설 논평의 에디토리얼(editorial) 기사 등 크게 나누어 3가지 형태로 가공 처리되어 신문에 실린다. 이 가운데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쳐 기사는 객관적으로 작성되고, 에디토리얼 기사는 주관적으로 작성된다.” 유영철(2008) 참조.

금사보장錦紗步障 돌너친 듯 구슬발이 령롱玲瓏하다  
삼복중三伏中에 결실結實하야 칠팔구월七八九月 점점漸 크미  
금낭錦囊처럼 둥근 속에 선 잉도櫻桃빛 즈마노紫瑪瑙를  
경면주사鏡面朱砂 덩點 찍은 듯 가득 소복 담어 있다  
서리 하늘 찬바람에 기기箇箇히 싸서 내려  
탁봉坵封하고 맛을 보미 감산甘酸하고 청렬淸冽하야  
오미즈五味子和 방불彷彿하니 리어병이利於病而 렬어구悅於口라  
III. 꽃 조코 여름 조키는 아마 네가 데일第一인 듯

여기의 ‘석류’는 이 텍스트에서 문제 삼는 대하여성(aboutness)을 갖는다. 곧, 이 텍스트 서술의 출발점이 되는 알려진 정보인 화제이다. 기술형 텍스트에서의 레마는 구성 요소들 전부이기 때문에 요약되기 어렵다. 여기에서 ‘레마’는 텍스트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테마-레마가 물론 절 차원의 분석 요소이긴 하지만 텍스트 전체의 테마가 설정 가능하다면 텍스트의 레마는 당연히 있어야 할 요소이다. 텍스트는 ‘테마에 대해서 레마라고 말하다’의 형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19)</sup> (9)에서 레마가 제시되는 II가 III으로 요약될 수는 있지만 이 요약은 레마로서의 정보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마무리하는 기능만을 가진 구성상의 요소로 평가될 뿐이다. 그 석류가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탐스러우며, 맛 또한 좋다’는 것이 결론으로서 새로운 정보인 레마이지만 이 결론은 주장으로서는 새롭지 않아 마무리라는 구조적 틀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일 뿐, 이 텍스트의 주제, 곧 화자가 무엇을 새로이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레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곧, 여기에서는 새 정보인 레마는 II에서 제시된다. 기술형 텍스트는 구체적으로 하위 항목들을 펼쳐보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텍스트 유형이기 때문이다.

19) 토픽-코멘트, 테마-레마, 화제-평언, 주제부-설명부 등은 같은 관계 구조를 가지는 것들이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해야 하겠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화제’라는 용어가 대표로 사용될 만한 데 반해 후자에 대해서는 그 대응형인 ‘평언’이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므로, 문장이나 텍스트 요약 구조를 이와 같은 정보 구조로 파악할 때에는 ‘테마-레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논증형 텍스트의 주제는 여러 논거와 뒷받침 자료와 추론 규칙들에 의해 지지되며 하나의 테제 곧 주제문(thesis statement)으로 집약된다. 논증형 텍스트인 위 (3)의 경우, 결론을 이루는 III은 새로운 정보로서의 레마를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주제로 부각된다. II는 III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담화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텍스트(3)과 (9)를 다시 가져와 그 텍스트 구조와 정보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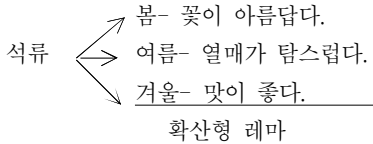
(10) 기술형 텍스트와 논증형 텍스트의 정보 구조

	식류(기술형 텍스트)		무궁화(논증형 텍스트)	
I	남창문南窓門 주렴球簾 밧게 각식화목 各色花木 벌었는디 그 中에 저 석류石榴는 스람 보고 반 기는 듯 입을 열고 반半만 우서 순홍치빅脣紅齒 白 사랑흠다	테마 제시부	암 마당에 심은 화목花木 네 일흠이 무궁화無窮花니 즈손화발子孫花發 무궁지無 窮枝라 즈손子孫 위히 심엇 구나	테마 제시부
II	리빅도홍李白桃紅 란만爛漫호야 구십춘 광九十春光 자랑홀 제 요요적적寥寥寂寂 잠자다가 장미황미 薔薇黃梅 필 적에야 비로소 님시 나며 창포시절菖蒲時節 꽃 이 피여 금사보장錦紗步障 돌너친 듯 구슬발이 령롱玲瓏하다 삼복중三伏中에 결실結實호야 칠팔구 월七八九月 점점漸漸 크미 금낭錦囊처럼 둥근 속에 선 잉도櫻桃빛 즈마노紫瑪瑙를 경면주시鏡面朱砂 덩點 찍은 듯 가득 소 복 담어 있다 서리 ㅎ늘 찬바람에 기기箇箇히 싸서 너려 탁봉坵封 ㅎ고 맛을 보미 감산甘酸하고 청렬淸冽호야	레마 제시부	한 가지가 시로 도다 꽃 한 송이 시로 피고 또 ㅎ 가지 도드면서 꽃 한 송이 또 피이니 무궁무진無窮無盡 ㅎ는 가지 무궁무진無窮無盡 꽃송이라 무궁무진無窮無盡 이 세월歲 월에 무궁무진無窮無盡 변성 蕃盛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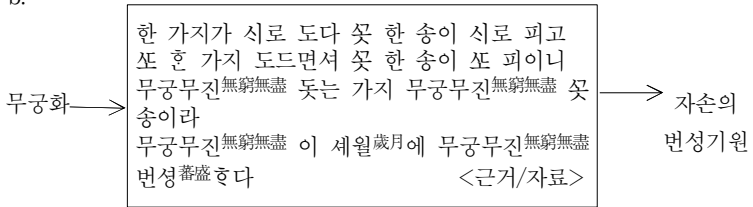
	오미즈五味子와 방불彷彿하니 리어병 이利於病而 렬어구悅於口라			
III	꽃 조코 여름 조키는 아마 네가 데일第 一인 듯		우리 즈손子孫 너와 갓치 무 궁무진無窮無盡 번성繁盛하 게	레마 제시부

여기에서 볼 수 있듯, 논증형 주제 전개는 하나의 테제로 수렴되는 집약형 인데 반해 기술형 설명형 주제 전개 구조는 하나의 테마가 여러 개의 레마로 확장되는 확산형이다.

(11) a.



b.



집약형 레마

곧, 기술형과 설명형 텍스트에서는 하나의 화제에서 출발하여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화하는 내용들이 새로운 정보로서의 레마가 되고 결국 하나의 화제에 여러 개의 레마가 제시되는 구조를 갖게 되어 확산형 레마를 갖는데 반해, 논증형 텍스트에서는 역시 하나의 화제에서 논의가 출발하지만 보통 하나의 주장이 곧 레마가 되어 집약형 레마를 갖는 것이다.

결국 레마에는 확산형 레마와 집약형 레마가 있고, 그것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브링커(2002, 이성만 역(2004;71)에서

기술형 텍스트의 경우 주제가 명세화와 상황화의 방법으로 전개된다고 한 것이 바로 레마의 확산형 구조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설명형 텍스트 또한 기술형 텍스트와 정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링커(2002, 이성만 역(2004;81))에서는 설명형 텍스트에서 “(설명)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은 함축적으로 기술형 전개 부분에 의해 엮어진 설명형 구조”라고 말하면서, “기본적인 설명형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텍스트 진술들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런데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제는 ‘최선의 요약’의 성격을 가져야 하므로<sup>20)</sup> 확산형 레마를 가지는 기술형, 설명형 텍스트의 경우에는 주제2가 인지되기 힘들다. 기술형 텍스트의 레마는 요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레마가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레마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유형의 텍스트의 목적이므로 요약이 쉽지 않은 것이다. 모든 텍스트는 하나의 명제 형식의 주제2를 가지게 된다. 하위 텍스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것이 ‘주제’를 어떤 텍스트의 ‘최선의 요약’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것은 기술형, 설명형, 논증형 텍스트를 불문하고 어떤 텍스트 종류에서도 유효한 설명이다. ‘주제’를 최상위 거시 명제로 보는 반 다이크의 거시구조 개념 또한 ‘주제’를 최선의 요약으로 보는 관점과 서로 통한다. 그것이 명제 형식이든 아니든 주제2란 거시적 분석을 요약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기술형 텍스트인 위 (9)를 요약하면 ‘석류에 대해 노래함’ 이상의 것은 나오기 어렵다. 기술형 텍스트와 같은 제보적 텍스트는 여러 세부 사항들이 나열되는 구조를 갖는데 이들이 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형성하는 새로운 정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명제로 집약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전체 텍스트를 아우를 때에는 논의의 출발점인 화제 자체가 주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텍스트 유형들에서는 화자가 이 텍스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레마)보다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테마)가 주목되고 바로 이것이 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결국 기술형이나 설명형 텍스트라면 화제 자체인 주제1이 두드러지지만, 논증형 텍스트에서는 최선의 요약인 주제문, 곧 주제2

20) 이삼형(1994), 김봉순(2002) 참조.

가 주목된다.

주제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것이 다를 뿐 결국 텍스트 기능과 관계되는 ‘요약된 화자 의도’라는 점에서는 같다. 화자가 각 텍스트 유형을 통해 하는 것은 아래 (12)와 같지만 그것을 대하여성과 관련하여 요약한다면 이는 다시 (13)으로 압축된다.

(12) 텍스트 유형에 따른 정보 구조 요약

- a. 논증형 텍스트 - 화자는 {테마}에 대해 {레마}라고 주장한다.
- b. 기술형 텍스트 - 화자는 {테마}에 대해 {레마}라고 기술한다.
- c. 설명형 텍스트 - 화자는 {테마}에 대해 {레마}라고 설명한다.

이때 기술형이나 설명형 텍스트의 {레마}는 확산형이어서 요약되기 힘들므로 이는 요약된 것으로서의 ‘주제’로 인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위 (12)의 a,b,c를 더 요약하면 (13)과 같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곧 최선의 요약인 ‘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13) 텍스트 유형에 따른 최선의 요약

- a. 논증형 텍스트 - 화자는 {테마}에 대해 {레마}라고 주장한다.
- b. 기술형 텍스트 - 화자는 {테마}에 대해 기술한다.
- c. 설명형 텍스트 - 화자는 {테마}에 대해 설명한다.

서론의 (2)의 고등학교 화법 책에서 말하는 ‘주제문’은 (13)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술형, 설명형 텍스트의 경우에 레마를 포함하지 않는 주제문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텍스트 유형에서는 레마가 확산형이어서 요약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논증형 텍스트의 경우에는 레마 부분이 없는 (13a’)와 같은 요약은 있을 수 없다.

(13) a’ ?화자는 {테마}에 대해 주장한다.

- a” ?화자는 ‘주 5일 수업제’에 대해 주장한다.

(13a')에서 청자는 화자가 '주 5일 수업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혹은 다른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 텍스트 유형의 요약에서는 초점을 받는 레마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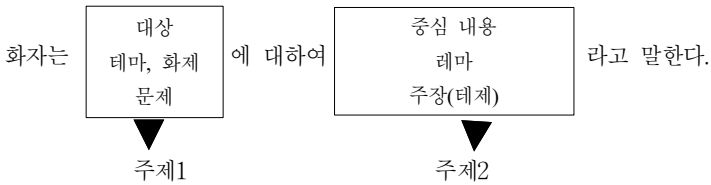
요약하면 기술형과 설명형 텍스트는 주제 전개가 펼쳐지는 확산형 주제 전개 구조를 가지며 논증형 텍스트는 하나의 주장으로 수렴되는 집약형 주제 전개 구조를 가지는데, 주제는 텍스트 요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확산형 레마는 주제가 되기 어렵고 따라서 기술형과 설명형 텍스트의 경우에는 테마가 텍스트의 주제로 여겨진다. 결국 기술형과 설명형 텍스트에서는 테마인 화제에 대해 말하고 논증형 텍스트에서는 레마인 테제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텍스트 유형에 따라 주제는 주제1과 주제2로 달리 이해되는 것이다.

####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주제'라는 말로 두루두루 부르는 것에는 화제(topic)와 중심 내용(main idea), 논증의 결론이 되는 주장 등이 있다. 화제는 화자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으로서 텍스트 서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중심 내용은 이 화제에 대해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가리킨다. 중심 내용에 화자 의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하면 주장, 곧 논증의 테제가 분석된다. 생각은 대상화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통 명사구로 나타나지 않고 명제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 중심 내용은 반다이크의 최상위 거시구조와 같으며 논증 텍스트의 테제(these)와도 유사한 것으로 화자 의도를 포함한다. 화제는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지만, 중심 내용은 그것에 대한 해결적 관점에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텍스트는 화제, 중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우리는 '주제'라는 말로 양자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14) 텍스트의 요약 구조



이 서로 다른 주제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리 강조될 수 있다. 기술형 텍스트와 같은 제보적 텍스트는 여러 세부 사항들이 나열되는 구조를 갖는데 이들이 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형성하는 새로운 정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명제로 집약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전체 텍스트를 아우를 때에는 논의의 출발점인 화제 자체가 주목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는 ‘최선의 요약’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요약되기 어려운 확장형 레마는 주제로 주목되기 어려운 것이다. 기술형, 설명형 텍스트의 레마가 확장되는 성격을 갖는 데 반해, 논증형 텍스트의 레마는 여러 근거나 뒷받침 자료를 통하여 하나의 주장으로 수렴되는 성격을 갖는다. 집약적 성격을 갖는 레마는 그 자체로 주제로 주목되는 데 문제가 없다. 결국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읽히는 것은 레마이지만, 요약적 성격을 가지는 주제의 성격상 기술형, 설명형 텍스트에서는 테마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태완 외(2001),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 북스.  
 고영근(2001), 텍스트 이론, 아르케.  
 권오만(2008), 개화기 시가연구, 새문사.  
 김봉순(2002), 국어교육과 텍스트 구조, 서울대 출판부.  
 김재봉(1999), 텍스트 요약 전략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연구, 집문당.  
 민병곤(2000), “신문 사설의 논증구조 분석,” 국어국문학 127, pp.133-154.  
 백설자 역(2001), 텍스트언어학 입문(Heineman & Viehweger, *Textlinguistik : eine Einführung*, 1991) 역락.

- 서혁(1996),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 논문.
- 신지연(2011), “주제 분석에 기여하는 텍스트 요소,”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111~134.
- 신지연·최혜진·강연임 편(2011), 개화기 가사 자료집 I~VI, 보고서.
- 신지연·최혜진·강연임(2011), “개화기 가사 자료의 현황과 의미,” 어문연구 64. pp.31~57.
- 원진숙(1995), 논술교육론, 박이정.
- 유영철(2008), “신문 칼럼의 성향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 이성만 역a(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Brinker, K., *Linguistische Textanalyse*, 2002), 역락.
- 이성만 역b(2006), 텍스트의 구조와 이해(Vater, H., *Einführung in der Textlinguistik*, 3rd edition, 2001), 배재대 출판부.
- 이창수(200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담화와 인계, 15-2, 담화인지언어학회. pp.143~161.
- 이원표 역(2004), 대중매체담화분석(Fairclough, N., *Media Discourse*, 1995), 한국문화사.
- 이정주(1995), 가사문학의 사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행 외(2003), 고등학교 화법, 금성출판사.
- 이진호(1990), 신문학기 가사문학의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지룡·김동환 역(2010), 인지언어학 개론(Ungerer & Schmid,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2/e, 2006), 태학사
- 장성남(2005), 대한매일신보 시가의 존재양상과 주제표출 방식,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성진(1991), 개화가사의 서술구조와 인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시호 역(1995), 텍스트학(van Dijk, *Textwissenschaft : eine inter disziplinäre Einführung*, 1980), 민음사.
- 조동일(1993), “춘향적 주제의 새로운 고찰,”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영출판사.
- 조세형(1998),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현석(2008), 조선 후기 현실 비판 가사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언론사연구회(2005), 대한매일신보연구, 커뮤니케이션 북스
-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 Halliday, M.A.K. and C. Matthiessen(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 ed.), Arnold.

202 신 지 연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 목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042)829-7496  
jshin@mokwon.ac.kr

원고 접수일: 2011년 11월 15일

원고 수정일: 2011년 12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2월 21일